



KT, 장기 이용 고객 초대 'AI와 함께하는 초대 드림 캠핑' 성료
KT는 지난 11일부터 강원도 횡성군 KT 전용캠핑장(병지방오토캠핑장)에서 진행된 'AI와 함께하는 초대드림 캠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핑에는 KT 유무선 상품을 장기 이용 중인 고객 89가족을 초대했다.

성수기 날린 정유사 실적 '좌불안석'

3분기 정제마진 손익분기점 하회

정제마진 1분기 7달러→3분기 3.5달러
글로벌 경기침체에 석유 제품 수요 폭
SK이노·에쓰오일 영업익 75%↓ 전망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정유업계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제마진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 손익분기점을 하회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주요 정유사들의 3분기 실적도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싱가포르 평균 복합 정제마진은 평균 3.5달러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와 비슷한 3.5달러 수준으로 올해 1분기 7~8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3분기는 여름철 휴가 등 드라이브 시즌으로 정유업계에서는 성수기로 분류한다. 실제 정제마진은 7월과 8월에는 각각 4.4달러, 4.3달러를 기록했지만, 9월에 2.1달러로 크게 떨어졌다.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판매가격에서 원유·운임 등 비용을 제외하고 정유사가 얻는 순수익으로 통상 정제마진이 4~5달러일 때 손익분기점으로 판단한다. 2분기에 이어 3분기에 정제마진이 하락한 데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석유 관련 제품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제마진에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도 최근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떨어지는 등 변동성이 심한 모습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중 두바이유(Dubai)는 지난 1일 배럴당 70.76달러로 기록한 후 오름세를 지속하다가 8일 78.98달러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마쳤다.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듯했지만, 이후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해 지난 11일 78.6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주유소 기름값 11주 연속 하락
이전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1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지난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6~1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2.2원 하락한 1585.4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13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이달 중 Brent(브렌트유)도 7일 80.94달러로 거래를 마쳐 가격 상승에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후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며 지난 11일 79.04로 거래를 마무리했다. 인도분 WTI(서부텍사스산 원유)도 7일 77.14달러로 고점을 찍은 뒤 등락을 반복하다 11일 75.5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과 미국 허리케인 사태에 따른 석유 공급 차질 우려 등의 영향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적인 정세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업계는 국내 정유사의 3분기 실적도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올해 3분기 SK이노베이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한 3203억원, 에쓰오일은 전년 대비 75% 감소한 215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진호 미래셋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OPEC+는 12월 증산을 계획 중이지만, 이란-이스

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미국과 중국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국제유가 솟aker버림이 이어질 수 있다"며 "정제마진은 계절적으로 난방 수요에 대한 재고 축적 기간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경유 비중이 높은 국내 정유사들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포스코퓨처엠, 연산 3만톤 양극재 공장 가동

지난해 삼성SDI와 40조 공급계약
포항 공장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광양 포함 2026년까지 24만톤 생산

포스코퓨처엠이 지난 12일 포항 NCA 양극재 전용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초도출하하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NCA 양극재는 니켈 함량이 88%인 하이니켈 제품으로, 니켈 외에 코발트, 알루미늄 등을 원료로 사용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높아 주로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1월 삼성SDI와 약 40조원의 공급계약을 맺고 광양공장 일부 라인을 활용해 NCA 양극재 공급 중이며, 고객사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포항에 건설 중인 NCA 양극재 전용공장을 계획보다 약 3개월 앞당겨 10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포스코퓨처엠은 포항에 연산 3만톤 규모의 첫 번째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대규모 수주에 안정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양산체제를 갖추게 됐다. 광양에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연산 5만2500톤의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향후 연산 8만2500톤의 NCA 양극재 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3월 국내 최초로 NCMA 단결정 양극재를 양산한 데 이어 NCA 단결정 양극재의 양산·공급체제도 갖추면서 고부가가치 기술 선도기업으로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제품인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증가로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퓨처엠은 포항과 광양을 글로벌 배터리소재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기지로 삼아 양극재 생산능력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6년까지 포항에는 이번에 준공하는 NCA 양극재 전용공장을 포함해 연산 10만6000톤, 광양에는 14만2500톤의 생산공장을 완성해 총 24만8500톤의 양극재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현대차그룹 정의선 號 4년 미래모빌리티 '가속 페달'

2022년 첫 연간 글로벌 판매 3위 등극
전기차 캐즘에도 뒤편 6만대 판매
10년간 5조7000억 투자 수조 입지 강화
자율주행·SDV 등 신사업 로드맵 속도

정의선(사진)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오는 14일 취임 4년을 맞는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무디스, 피치 등으로부터 일제히 신용등급 A등급을 획득했다. 이른바 신용등급 A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현대차·기아,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가 전부다.

현대차그룹 위상 변화가 가장 확연한 부분은 판매로 지난 2022년 처음 연간 글로벌 판매 3위에 오른 이후 올 상반기까지 도요타, 폭스바겐과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도 지난해 '톱4'에 진입했고, 올 상반기 역시 친환경차 16만대 등 총 81만여 대를 판매해 순위를 굳게 지켰다.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기아는 친환경차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미국에서 올 상반기 6만1883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작년 같은 기간 3만8457대보다 60.9% 늘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동화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현대차·기아가 전기차 톱티어 위상을 구축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평가다.

E-GMP는 정의선 회장이 적극 주도한 전기차 퍼스트 무브 전략의 출발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현대차그룹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게임 체



인자로 자리매김했다.

수소전기차 분야에서 현대차그룹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수소차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공식 출범한 미국 '캘리포니아 황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에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30대를 공급한 바 있고, 현대차가 스위스에 공급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총 누적 주행거리가 1000km를 돌파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연료전지 기술력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현대차그룹은 넥쏘 후속 모델을 2025년까지 출시하고, 향후 10년간 5조7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수소산업 업계에서 톱티어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한다는 복안이다.

현대차그룹은 SDV(Software Defined Vehicle) 본격화를 대비해 사용자 중심 환경을 제공하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오픈형 생태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여러 비율의 중앙 디스플레이 등을 개발해 2026년 상반기에 양산 차량에 적용한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전기차 모델 21개, 기아는 PBV 모델을 지속 투입해 2027년까지 15개 등 각각 전기차 풀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이다. SDV, 자율주행, 로보틱스, AAM 등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 신사업은 그룹 중장기 로드맵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kswpp@viva100.com

제48회 남명선비문화축제 (남명제)

2024. 10. 18(금) ~ 19(토) 2일간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산천재 일원 (산청군 시천면 소재)

2024년 제1회 학술발표회

📅 일시: 10월 18일(금), 13:30~18:00

📌 주제: 선비, 어떤사람인가: 선비의 삶과 사상

주요행사 10월 19일(토) 09:30~17:00

- 📌 제전행사: 남명묘소참배, 남명제례, 개막식 등
- 📌 공연행사: 남명마당극, 한복패션쇼, 예능, 두리, 한복 등 출연
- 📌 문예행사: 제9회 남명회포대회, 제23회 전국한시백일장, 제22회 천상병 문학제, 제13회 산천재 시화전, 제26회 전국 시조경향대회, 2024년 경남학생백일장
- 📌 전시·체험행사: 제26회서도연합회원전, 지리산국립공원 사진전, 남명관련 사진전, 선비전통놀이체험(국궁 투호, 고리걸기, 옷놀이, 제기차기 등), 유복입고 사진찍기, 선비부채 및 가운 써 드리기, 어린이버블쇼 체험,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가수 에녹

가수 두리

가수 한복

버블아티스트MC선호

주최 산청군 **주관** 남명선비문화축제집행위원회

후원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산청교육지원청, (재)남명학진흥원, 산청문화원, 경남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경상국립대학교 남명학연구소, 서울대남명학회, (사)남명학연구원, (사)남명사랑, 경남하고연합회, 산청향교, 단성향교, 진주향교, 경상남도서원연합회, 덕천서원, 신산서원, 용암서원, 창녕조씨 종친회(무순)